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 Tel 02. 765. 3011~3



08

2015 | Vol. 527

가나가와현 에노시마 (神奈川県江ノ島)

Photo: Kazuhisa Ishikawa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 최대의 민간교류 행사로서 양국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열고 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테마로 9월 19일(토) 신촌 연세로와 9월 20일(일)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특별행사로 1일차(19일) 신촌 연세로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개최되어, 조선통신사행렬재현과 관련 부스 설치, 양국 출연진의 무대공연과 퍼레이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일차(20일) 코엑스에서는 한일축제한마당 공식행사는 물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한일 합동 공연’과 ‘스페셜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지역축제공연과 젊은이들의 문화공연 그리고 지자체 · 기업 · 체험 · 푸드 부스가 운영된다.

일시 및 장소 1일차 : 9월 19일(토) 11:00~18:00 신촌 연세로

2일차 : 9월 20일(일) 10:00~19:30 코엑스 B홀

행사 테마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

행사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행사구성 1일차 : 퍼레이드, 무대공연, 부대행사

2일차 : 무대공연, 마당놀이, 전시부스

주최,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실행위원회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운영위원회

후원

한국측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측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국제교류기구

일한문화교류기구

서울재팬클럽(SJC)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공식홈페이지 <http://www.omatsuri.kr>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사전홍보행사 2015 We're friends ~우리는 친구다~

한일축제한마당 사전홍보행사로 기획되어 한국과 일본 양국 아티스트의 음악교류를 통해 우정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무대인 흥대를 기반으로 '한일축제한마당'을 사전 홍보함으로써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3개팀, 일본에서 4개팀이 참여하여 멋진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행사명 2015 We're friends ~우리는 친구다!~

일시 9월 18일(금) 19:30~ (19:00부터 입장)

장소 흥대 롤링홀(Rolling Hall)

입장료 예매_15,000 / 현매_20,000

주최 우리는 친구다 조직위원회

주관 (주)CMG초록별, 비포레스트 코리아

후원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운영위원회

출연아티스트 한국아티스트 : 키위밴드, 연규성, 고고스타

일본아티스트 : 젠틸리(Gently), 히로사와 타다시(広沢タダシ)

타이나카 사치(タイナカ彩智), 코도모 드래곤(Codomo Dragon)

공식홈페이지 <http://www.omatsuri.kr>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과 함께하는 제3회 코스프레 사진 콘테스트

응모기간 8월 5일(수)~9월 2일(수)

접수방법 성명, 닉네임, 연락처, 코스프레명, 각오 한마디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up_agency@naver.com

※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과 함께하는 코스프레 사진 콘테스트 접수'로 기입.

※ 사진은 인쇄해서 전시할 수 있는 사이즈(최소 1,000픽셀 이상)

선발일정 1차 발표 8월 29일(금) 개별 연락 | 2차 발표 9월 14일(일) 행사 당일

심사방식 1차 심사 내부 심사를 통해 20명 내외 선발

2차 심사 행사 당일 현장투표를 통해 순위 선정

기타사항 행사 관련해서 주최측의 취재 허가를 받은 취재원은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가능.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은 해당 미디어를 통해 방송 될 수 있다.

※ 1차 심사 때, 한국과 일본의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과 관련된 코스프레의 경우 가산점 부여.

문의 카카오톡 UP 6969, 문의 010-4157-6969



경상북도 경산시, 교토부 조요시 자매도시교류

경상북도 경산시와 교토부 조요시(京都府 城陽市)는 1991년 1월 22일 자매도시명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 2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면에서 교류해 왔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경산시 방문시 환영행사



한국을 방문한 조요시 중학생과 경산시 중학생의 교류

교류의 계기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우선 일본과 가까운 아시아 지역과의 도시제후를 목표로 '조요시 국제교류간담회'가 조사, 검토하여 조요시 스포츠소년단과 교류하던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조요시도 교토와 오사카의 베드타운)라는 점, 제후도시 검토를 위해 한국을 찾은 시민방문단을 따뜻하면서도 열렬히 환영해주고, 나아가 조요시 방문시 우호도시에 대한 강한 의욕이 보이자 1991년 1월 22일 경산시와 자매도시명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교류의 역사

행정 간 교류는 주로 자매도시명약체결 이후, 두 시의 기념행사에 시장 등이 상호 방문하고 행정간 교류 촉진을 위한 직원 상호파견, 나아가 각종 시설, 시책 시찰을 위한 방문이 있었다. 최근에는 매년 양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두 시의 행정간 유대가 강화되고 시민간 교류의 환경이 조성되어 조요시가 지향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국제교류활동'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정간 교류 외에 두 시의회 간의 상호방문, 또한 시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조요시 국제교류협회의 회화 교류, 중학생 초청사업, 중학생 파견사업, 시민방문단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간의 풀뿌리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이온스 클럽이나 청년회의소 간의 교류뿐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에 의한 축구, 소프트 테니스, 마라톤 등의 스포츠 교류도 해왔다.

앞으로의 교류

2015년 11월 조요시 문화복합시설인 문화 파

루쿠 조요(文化パーク城陽) 개관 20주년 기념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경산시 시장 여러분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간 교류뿐 아니라 의회와 시민이 각각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지속해온 교류를 소중히 여기면서 더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

교토부 조요시 소개

조요시라는 명칭인데, ‘성(城)’은 옛날 이 지역의 지명인 ‘아마시로노쿠니(山城の国)’라는 이름에서 따왔으며, ‘양(陽)’은 ‘태양으로 향하는 장소(日に向かう場所)’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매우 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조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조요시는 교토에서 5리(五里), 나라에서 5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고리고리노사토(五里五里の里)’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북적거리던 역사 있는 도시다.(※5리는 약20km) 교토, 오사카, 나라 도시권으로의 교통편이 좋아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택지개발에 따른 베드타운으로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으며, 1972년 5월 3일 조요정(城陽町)이 조요시가 되었다. 앞으로 신메이신 고속도로(新名神高速道路) 전노선이 정비되면 관서와 중부권을 잇는 광역교통요충지로서, 광역적인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려고 있다. 도시 규모도 알맞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세심한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 자연이 많이 남아있는 살기 좋은 곳이다.

조요시의 지역산업으로는 ‘금은사제조업’이 있으며, 기모노에 사용되는 교토의 전통직물인 니시진오리(西陣織) 등의 재료로서 조요시의 생산 점유율은 일본의 약50%에 이른다(조요 농가의 부업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학교 체육관에 걸린 교장(校章)이나 영화관의 막, 스모 선수의 게쇼마와시(化粧廻し, 앞치마 모양의 장식용 복장) 등에도 금은사가 쓰이고 있다). 매년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고노스야마(鴻ノ巣山) 운동공원에서 빛의 페이젼트~TWINKLE JOYO~(56만개의 조명)가 개최되며, 매년 조요시 안팎에서 약2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로는 매화, 우지차(宇治茶)로 유명한 녹차, 고구마, 무화과, 꽃창포 등이 있다.

특히 매화의 경우, 조요시 최대 관광지인 아오다니바이린(青谷梅林)의 20ha 부지에 1만 여 그루의 조슈하쿠(城州白, 백매화로 매실 열매가 굵고 실하다)가 심어져 있으며 교토 최고의 산지로 손꼽히고 있다. 수확량은 연간 120~130톤이다.

조요시 최대의 문화의 전당인 각종복합시설 ‘문화 파루쿠조요’는 1975년에 오픈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수용인원이 1300명인 홀과 20만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 역사민속자료관, 커뮤니티센터, 프라네타리움(긴키(近畿) 지방 최대급, 지름 23m) 플레이룸(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볼 풀과 체육시설이 있는 실내 플레이룸) 등의 복합시설이, 인기 가수 콘서트를 비롯하여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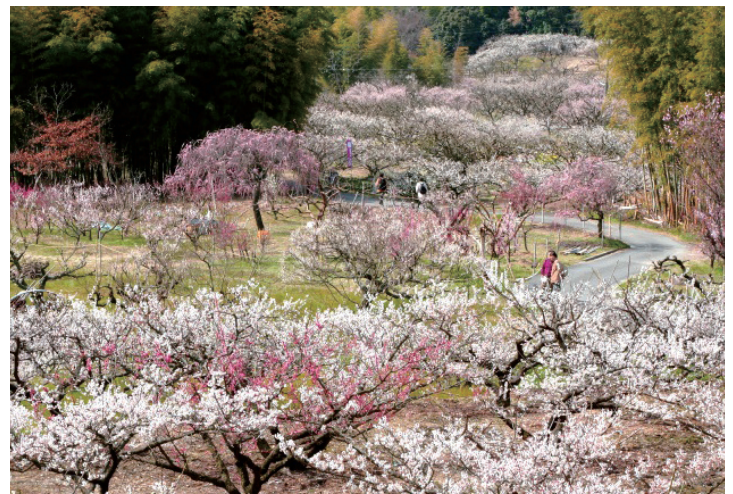
(협력: CLAIR, Seoul)



조요마라톤대회에 경산시 선수단 초청



빛의 페이젼트~TWINKLE JOYO~



최대 관광지인 아오다니바이린

교토부 조요시 <http://www.city.joyo.kyoto.jp/>
문의처 교토부 조요시 기획관리부 비서홍보과
TEL +81-774-56-4013 FAX +81-774-52-1175

포항 구룡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카페 후루사토야의 박주연 대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후쿠오카한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일본어를 배우게 된 동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저는 현재 포항한일문화교류회장, 구룡포 근대역사관장, 포항시홍보대사(2009년)를 맡고 있으며, 20년 이상 주후쿠오카한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인맥을 활용해서 양국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을 포항과 구룡포에 유치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게 된 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7세까지 미야기현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해서인지, 어릴 적부터 일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서 외교관이 되면 일본에 가야지’라는 말을 친구들 앞에서 종종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긴 했지만,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대학 진학 후인데, 더 많은 서적을 보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와 별 상관없이 ‘도모다치(友達)’라는 말을 쓰고 실제로 아랫사람을 잘 챙겨주는 일본 문화는 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제 주위에는 ‘주연짱’이라고 부르면서 늘 격려해 주는 연세 지극한 일본인 도모다치가 많습니다.

포항 구룡포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언제 조성되었으며 현재 어떤 시설이 있나요.

구룡포 일본가옥거리는 100년전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원형복원을 위해 2011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2년 7월 31일 근대역사관 완공과 더불어 개관식이 개최되었죠.

簡単に自己紹介をお願い致します。在福岡韓国福岡総領事官で勤務されたことがあると伺いましたが、勤務のきっかけ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また、日本語を学ぶきっかけ、日本で生活をしながら感じたこと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

はじめまして。パク・ジュヨンです。私は現在、浦項(ポハン)の韓日文化交流会長、九竜浦(クリョンポ)の近代歴史館長、浦項市広報大使(2009年)を務めており、20年以上駐福岡大韓民国総領事館で勤務した経歴もあります。勤務経験を基に日本の人脈を活用し、両国の文化交流の先頭に立ち、毎年多くの観光客を浦項と九竜浦へ誘致するために努めて参りました。

私が日本へ行ったのはとても自然なことでした。母は17才まで宮城県で教育を受け、生活したためか、幼い頃から日本についていろんな話を聞きながら育ちました。小学校時から日本に関心があったようです。「大人になって外交官になれば日本に行くよ」ということを友達の前でよく話していました。高校の時、第2外国語として日本語を習いましたが、日本語を本格的に勉強したのは大学進学後です。より多くの書物を読みたかったので一生懸命にやりました。年齢とは関係なく「友達」という言葉を使い、実際に年下の面倒をよく見てくれる日本文化は、私の人生に多大な影響を与えました。今も私の周りには「ジュヒョンちゃん」と呼び、いつも励ましてくれる年配の日本人の友達が 많습니다。

浦項九竜浦の近代歴史文化通りはいつ造成され、現在、どのような施設がありますか。

九竜浦の日本家屋通りは100年前に作られました。原型を復元するために2011年3月から工事が始まり、2012年7月31日、近代歴史館の完成とともに、開館式が行われました。

当時、日本から500人が参加しましたが、私は浦項市諮問委員として、造成事業に必要な通訳・案内などのボランティアを行い、当時、浦項市長の委嘱により近代歴史館の名誉館長を務めることとなり、現在まで町の活性化に向けていろんな努力を行っています。見どころとしては、日本家屋を復元した近代歴史館、9頭の竜の銅像がある公園、29軒の日本家屋が並んでいる町、2010年からオープンした名物カフェ・古里家(1919年建築)と「韓日文化体験館」があります。

カフェ「古里家」を運営す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や「古里家」ではどのような日本文化を体験できるのか、御紹介下さい。

九竜浦の近代歴史文化通りを作る計画を立てていた頃、当時の市長から2009年浦項市広報大使を委嘱され、その役割を担うため、古里家を開く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人観光客を浦項に誘致し、韓国人に九竜浦を広報する

당시 일본에서 500명이 참석했는데 저는 포항시 자문위원을 맡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통역, 안내 등의 봉사를 했고, 당시 포항시장의 위촉으로 근대역사관 명예관장직을 맡게 되었고 현재까지 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거리로는 일본가옥을 복원한 근대역사관, 9마리 용의 동상이 있는 공원, 29채의 일본가옥이 즐비한 거리, 2010년부터 문을 연 이 거리의 명물 카페 후루사토야(古里家, 1919년 건물)와 후루사토야 한일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카페 후루사토야를 운영하게 된 계기와 후루사토야에서 어떤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구룡포 근대역사거리를 만들 계획을 구상 중이던 무렵, 당시 시장으로부터 2009년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 받게 되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후루사토야를 열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포항으로 유치하고 한국인에게 구룡포를 알리기 위해서 였는데, 당시 정비가 거의 안 된 곳을 찾아주신 손님께서 ‘어서오세요’라는 인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일우호카페로 널리 알려진 후루사토야에서는 기모노와 유카타 체험, 말차 체험, 외국관광객에게 한복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기모노와 유카타를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설 정도로 인기입니다.

일한 양국 풀뿌리 문화도 활발히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2010년 6월 문을 연 후루사토야(휴식공간)는 일본가옥을 그대로 살린 공간입니다. 운치 있는 건물에서 정기적인 모임과 한일문화교류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일본민속품, 기모노 전시, hina인형단을 세워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포항한일문화교류회 발족 이래 후쿠오카현 거주(일본인들로 구성) 회원들과 10차례 이상 상호 방문해서 한일문화교류사업(주요내용: 일본전통문화와의 만남, 일본식문화 체험(스시와 차), 한일전통차를 통한 교류회, 일본문화체험교실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 간의 교류행사 외에도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자녀의 일본대학 진로나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물론 일본어 레시피를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는 빵집 사장님 등 일본문화를 접하고,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NHK 일본방송에서 ‘후루사토야 유카타 체험’ 방영 후 일본 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알지 못하면서 싫다’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서로간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후루사토야는 일본인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하고 한국인에게는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한일 민간외교의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ためであり、当時はほとんど整備されていなかった町を訪問して下さったお客様に「いらっしゃいませ」と挨拶をしたかったからです。日本では日韓友好カフェとして広く知られている古里家では、着物や浴衣体験、抹茶体験、外国からの観光客を対象に韓服体験も行っています。週末には着物や浴衣を体験するために列ができるほどの人気です。



日韓両国の草の根交流も活発に行っていると伺いましたが、具体的な活動内容について紹介してください。

2010年6月にオープンした古里家(休憩空間)は、日本家屋をそのまま生かした空間です。雰囲気のある建物で定期的な集まり及び日韓文化交流行事を行っています。室内には日本の民俗品、着物、ひな人形壇の展示を行っています。

2011年3月、浦項韓日文化交流会の発足以来、福岡県に滞在する会員(日本人で構成)と10回以上にわたる相互訪問、日韓文化交流事業(主要内容:日本伝統文化との出会い、日本文化体験(寿司、お茶)、日韓伝統お茶を通じる交流会、日本文化体験教室など)を行ってきました。

会員間の交流行事以外にも日本に関心のある多くの人にお越しいただいています。子供の日本の大学への進路や日本語を学びたい人をはじめ、パン屋の社長さんが日本語のレシピを韓国語に翻訳してほしいとお願いしてくるなど、日本文化に接し、知りたいと思う人が日々増えています。今年の4月、NHKで「古里屋の浴衣体験」が放映された後、日本の方の関心も高まっています。私の一日は、まさに日韓の文化交流で忙しく過ぎていきます。

今後の計画。

「知らないまま嫌う」気持ちを克服する力は、お互いの交流だけ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古里屋は、日本人は郷愁を感じ、韓国人は日本文化と接することができる「日韓民間外交の役割」を果たす場所として発展していくよう、尽力致します。





국립 히타치해변공원 네모꽃과 꽃밭

아름다운 자연과 최첨단 과학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대지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茨城県)이 일본의 어디쯤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겠지만, 도쿄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어 방문하기 수월한 곳이다. 이바라키현에는 여행하고 싶어지게 하는 일본다운 매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바라키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현의 북부는 울창한 산간 지역, 남부는 비옥한 관동평야 지대로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가스미가우라(霞ヶ浦) 호수가 있다. 동쪽은 태평양에 면해 있으며, 해안 길이는 약 190km에 이른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이바라키현은 농업, 어업, 축산업이 번성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풍부한 식재료를 사용한 좋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이바라키의 매력 중 하나다. 스시로 대표되는 해물요리, 히타치규(常陸牛, 소고기)와 로즈 포크(ローズポーク, 돼지고기), 오쿠쿠지 샤모(奥久慈シャモ, 토종닭) 등 명품 축산물, 고품질 딸기와 멜론, 포도 등의 과일이 셀 수 없이 많다.

한편, 이바라키현에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된 쓰쿠바(つくば)와 공업의 거리 히타치(日立)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다. 또한 대규모 상업항구가 있으며, 수도 도쿄와 매우 가깝다는 좋은 조건 때문에 화학, 기계,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의 대규모 공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요로운 자연뿐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이바라키현만의 매력이다. 그러면 이바라키현 관광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추천하는 장소를 몇 군데 소개한다.



국영 히타치해변공원 코키아 단풍



겨울의 후쿠로다노타키



후쿠로다노타키와 가을 단풍

세계의 절경, 국영 히타치해변공원 네모필라

일본을 대표하는 꽃 하면 벚꽃이지만 이바라키현에는 이 외에도 매실, 복숭아, 수선화, 튜립, 장미, 코스모스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것이 미국의 뉴스전문방송 CNN의 Web 특집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31선’에 뽑힌 ‘국영 히타치 해변공원(国営ひたち海浜公園)’ 네모필라 꽃밭이다. 영어로는 Baby blue eyes(아기의 푸른 눈)라 부르며 이름처럼 푸르고 작고 귀여운 꽃이다. 이 공원에서는 4월 하순부터 3.5ha의 넓은 부지에 450만 송이의 네모필라가 피며 한쪽 언덕을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인다. 이 풍경은 마치 지상을 떠나 하늘을 산책하는 듯한 절경으로 많은 관광객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또한 10월의 고키아 단풍도 꼭 보았으면 하는 풍경이다. 고키아는 일명 빗자루 풀이라 불리며, 땅에서 풍선이 자라는 듯한 재미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네모필라가 피는 시기가 지난 후, 같은 장소에 고키아를 심는다. 여름은 상쾌한 연두색이지만, 10월이 되면 단풍이 젖서 언덕을 온통 붉게 물들인다. 봄의 네모필라가 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사람은 꼭 가을의 고키아를 보기 바란다.

최첨단 과학기술연구도시 쓰쿠바시

영봉 쓰쿠바산과 최첨단 과학기술이 모인 거리가 쓰쿠바시다. 시내에는 JAXA를 비롯해서 일본 유수의 연구소가 300개 이상 존재하며, 약 2만명의 연구자와 약 7천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밤낮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 또한, 쓰쿠바시에는 견학시설이 많아 세계최첨단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 한편, 쓰쿠바산과 그 주변에는 목가적인 풍경이 남아있어, 풍요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과일 재배가 활발하여 블루베리, 딸기, 배 등을 수확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 과일들은 오랜 품종개량 결과, 아주 달콤하고 싱싱한 맛을 내는데, 이는 이바라키의 자연과 기술이 낳은 보물이라 할 수 있다. 이바라키현을 방문하면 꼭 다양한 과일을 맛보기 바란다.

일본 3대 명폭포 후쿠로다노타키

이바라키현 북부에 위치한 후쿠로다노타키(袋田の滝)는 폭 73m, 높이 120m의 대형폭포로서 일본의 3대 명폭포 중 하나다. 멀리서 보면 하얗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물살이 지면을 강하게 내리치며 거친 모습을 보인다.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매료되어 시간의 흐름도 잊게 된다. 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또한 겨울에는 동결되는 보기 드문 폭포다.

그리고, 후쿠로다노타키가 있는 다이고정(大子町)은 이바라키현 토종닭(투게용닭)인 오쿠쿠지사모와 유바(湯葉, 두유를 가열하여 생긴 얇은 막을 말린 식품) 등을 사용한 향토요리, 깨끗한 물로 만든 메밀국수와 지역 맥주, 곤약 외에도 은어와 사과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있는 이바라키의 음식의 보고다. 후쿠로다노타키로 여행하실 때는 식사나 선물을 선택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일본에는 도교와 교토 외에도 매력적인 관광지가 많다. 이바라키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일본을 만날 수 있는 멋진 관광지다. 꼭 한번 이바라키에 와서 그 매력을 느껴보기 바란다.

국영 히타치해변공원 http://database.ibarakiguide.jp/db_kanko/?type=kr&detail&id=0800000000116

쓰쿠바시 http://database.ibarakiguide.jp/db_kanko/?type=kr&detail&id=0800000000113
http://database.ibarakiguide.jp/db_kanko/?type=kr&detail&id=0800000000010

후쿠로다노타키 http://database.ibarakiguide.jp/db_kanko/?type=kr&detail&id=0800000000017

[문의처] HP : <http://korean.ibarakiguide.jp/> TEL : +81-29-301-3616 mail : kokusaikanko@pref.ibaraki.lg.jp

일본 추부지방의 사케

추부지방(中部地方)은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도호쿠 지방(東北地方)과 간토 이 지방(関東地方), 서쪽은 긴키 지방(近畿地方), 남쪽은 태평양, 북쪽은 일본해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크게 나누어 일본해에 면한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 내륙부의 추오코지(中央高地), 태평양에 면한 도카이 지방(東海地方)으로 나누며, 각각 크게 나누어진 지방을 합쳐 중부 지방이라 부른다.

- 일본해에 면한 현 : 니가타현(新潟県), 도야마현(富山県), 이시카와현(石川県)
후쿠이현(福井県)
- 내륙에 면한 현 : 야마나시현(山梨県), 나가노현(長野県), 기후현(岐阜県)
- 태평양에 면한 현 : 시즈오카현(静岡県), 아이치현(愛知県)

일본의 특징이지만, 태평양측과 일본해측 그리고 내륙부의 추오코지와 각각 지리적으로도 기후 특징 등에 차이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각의 토속주도 그 특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신에쓰(甲信越), 니가타현 · 나가노현 · 야마나시현

이 가운데 니가타현과 나가노현은 제조업체 수가 일본 1, 2위인 현으로 특히 토속주 업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니가타현은 좋은 술을 빚을 수 있는 조건인 기후, 쌀, 물을 갖추고 있으며, 미네랄 성분이 적은 연수로 만드는 니가타 술은 예로부터 물처럼 깨끗하고 순한 맛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주조호적미(酒造好適米) ‘고하쿠만고쿠(五百万石)’라는 품종이 있으며 담백한 술 맛을 내는데 적합하다.

또한 사케를 빚는 대표적 기술자인 도지 집단(杜氏集団)의 하나로서, 남부기술자에 이어 제2 규모인 에치고(越後) 기술자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1980년대에 들어 한때 토속주 열풍을 일으키며 일약 일본 전역의 주목을 받게 된다. 시라타키 조젠미즈노고토시(白瀧上善如水), 구보타(久保田), 미네노하쿠바이(峰乃白梅), 고시노칸바이(越乃寒梅) 등이 대표적인 종류다.

자연이 풍요로운 나가노현은 사케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일본의 지붕으로 사랑 받는 일본 알프스의 물, 주조호적미 ‘미야마니시키(美山錦)’ 재배, 알프스



시라타키

효모 개발 등과 같은 술 빚기에서 시작된 고품질 토산주가 특징이다. 협회 7호 효모 발상 양조장이기도 한 마스미(真澄)가 유명하며, 이외에도 나나와라이(七笑), 시나노니시키(信濃錦), 다이셋케(大雪溪), 다이신슈(大信州) 등이 있다. 고슈종(甲州種, 일본 특유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으로 유명한 야마나시현에는 산맥에서 흘러나온 물과 매서운 겨울 추위가 있어 술 담그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토속주는 깔끔하고 세련된 맛이 특징이다. 종류는 순노텐(春鶯轉), 시치켄(七賢) 등이다.

호쿠리쿠, 도야마현 · 이시카와현 · 후쿠이현

호쿠리쿠 3현은 메이조(銘醸, 청주) 지역으로서 일본 전국신주감평회에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도야마현의 술은 목 넘김이 좋고 질리지 않는 타입이 많다. 진한 맛을 내는 노토(能登)의 장인과 임팩트 있는 맛을 만드는 에치고(越後) 장인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개성 넘치는 사케가 특징이다. 종류는 호쿠요(北洋), 마보로시노타키(幻の瀧), 긴반(銀盤) 등이 있다.

이시카와현은 한랭한 기후와 하쿠산 수계의 좋은 물, 주조호적미 ‘고하쿠만고쿠’의 산지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련된 맛을 내는 ‘가가노기쿠자케(加賀の菊酒)’와 진한 노토의 술로 나눌 수 있으며 일본에서 손꼽히는 술도가로 알려져 있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는 특히 맛있는 음식의 보고로서 보존식이 발달한 특수한 음식 문화가 특징이다. 사케를 빚는 대표적인 장인 집단의 하나인 노토 장인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의 첨단 부근이 발상지로서 노토 장인이 만드는 술 맛은 포근하면서도 깊고 진한 단맛이 나는 경향이 강하며, 맛있는 음식과의 궁합도 뛰어나다.

주조 관계자 사이에서 노토시텐노(能登四天王)로 불리는 4명의 탁월한 기술을 지닌 장인이 활약하며 주목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종류는 기쿠히메(菊姫), 탕구마이(天狗舞), 데도리가와(手取川), 소겐(宗玄) 등이 있다.

도카이, 시즈오카현 · 기후현 · 아이치현

신주감평회에서 대량 입상한 시즈오카현, 기소의 3대 강(기소강(木曽川), 나가라강(長良川), 이보강(揖保川))의 양질의 물이 있는 기후현. 예로부터 술 빚는 전통이 남아있는 아이치현의 각지에서 개성 강한 술을 빚고 있다.

시즈오카현이 유명한 양조지역의 하나로서 일본 전역에서 주목을 받으며 크게 도약한 것은 1986년 일본의 ‘전국신주감평회’다. 이 해에 시즈오카현에서 21개 양조장이 출품, 17개 양조장이 입상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양조장이 금상을 수상하여 금상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 원동력 중 하나가 ‘시즈오카 효모’다. 시즈오카 효모는 초산 이소아밀이 우세한 부드러운 과실향을 내는 시즈오카현이 개발한 오리지널 청주 효모다. 시즈오카 효모로 담근 술은 ‘시즈오카형 긴쥬(静岡型吟醸)’로 불리며 향이 진하고, 산도가 낮으며 부드럽고 깔끔함을 갖춘 중



미야마니시키



기쿠히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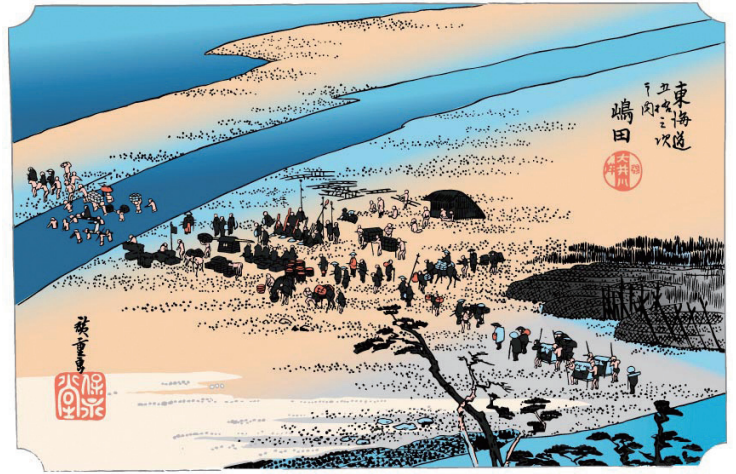
소겐

래에 없는 유형으로 '과일 향이 나는 부드럽고 깨끗한 술' '부드러운 맛과 향이 식사 중에 마시는 술로서도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류는 가이운(開運), 이소지만(磯自慢), 후지니시키키(富士錦), 가류마이(臥龍梅), 시다이즈미(志太泉) 등이다.

기후현을 대표하는 주조호적미는 히다호마레(ひだほまれ)다. 기후현의 술은 담백하고 깨끗한 타입과 깊고 진한 타입이 현저히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평야부(미노노쿠니(美濃の国))는 담백하고 깨끗하며, 산악 내륙의 히다 지방(飛騨地方)은 깊고 진한 경향이 있다. 겨울철 강설량이 많은 내륙 지역은 옛날에는 교통편 등의 문제도 있어, 보존이 되는 염분이 많은 식재료에 걸 맞는 담백하고 깨끗한 맛의 토속주가 많았으며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종류는 구스다마(久寿玉), 미치사카리(三千盛), 고자에몽(左衛門), 다루마마사무네(達磨正宗), 나가라가와(長良川) 등이다.

아이치현의 술 빚기는 고지키(古事記)나 니혼쇼키(日本書紀) 시대의 문헌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전통, 기술 등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는 아이치현의 청주는 기소의 3대 강과 야하기천(矢作川) 등 맑은 물의 복류수, 양질의 원재료인 쌀, 술 빚기에 적합한 기후

풍토 같은 환경의 혜택을 받으며, 일본 전역에 알려진 우마쿠치(旨口) 술을 빚고 있다. 종류는 가모시비토쿠헤이지(醸し人九平次), 호라이센(蓬莱泉), 기쿄(義俠) 등이다.



와카다케 시마다 우키요에





모집! 일본문화원 리포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다양한 정보와 일본문화원 소식을 전하는 일본문화원 리포터를 모집한다. 선발된 분들은 약6개월간 일본문화원 주최 또는 후원 행사에 리포터로서 참여하여 취재 활동 및 SNS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방일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일본 현지를 취재할 기회를 제공한다.

1. 선발일정

- **서류접수** 8월 7일(금)까지 * 당일 정오 우편 도착분 유효
- **1차 합격자 발표** 8월 10일(월),
일본문화원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j.munwhawon>) 게재.
합격자 발표 예 : (지원자 이름 : 홍●동, 핸드폰 끝자리 숫자 1234)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 일부 게재
- **면접** 8월 19일(수), 20(목) 시간과 장소는 추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8월 21일(금), 개별 통보

2. 지원방법

- 자기소개서 및 설문조사, 에세이를 함께 제출할 것
[자기소개서 및 설문조사 다운로드]
http://www.kr.emb-japan.go.jp/youth_exchange/reporter_01.pdf
-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자필 작성할 것
- 우편 접수만 가능

3. 에세이 테마와 분량

- **테마**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알리고 싶은 일본문화
※ 선발된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기 할 것
- **형식** 에세이
- **분량** A5 3장 이내
- **언어** 한국어 또는 일본어

4.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

2015 일본문화원 리포터로 선발된 분은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일본문화원 주최 및 후원 행사, 관련 소식을 취재, 전달하는 리포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선발자는 정기교류회 및 그룹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 내 일본문화, 일본의 매력, 소개하고 싶은 일본 소식 등을 취재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소개한다.

또한 9월에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2015 in Tokyo'에 일본문화원 리포터로 파견하여 일본 현지 취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방문비용은 일본정부 부담)

5. 활동 혜택

-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2015 in Tokyo'(2015년 9월 26일 ~ 27일) 참여 및 일본 현지 취재 기회 부여 (항공권 및 숙박, 체류비 지원)
- 문화원 주최의 다양한 문화행사 등 관람 기회 부여
- 일본문화원장 감사장 수여

6. 지원 자격

- ①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만 19세 이상~만 40세 미만)
- ② 기초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분
- ③ 2015년 9월 26일(토) ~ 27일(일)에 개최될 '한일축제한마당2015 in Tokyo' 전후 일주일 일정의 일본 현지 취재가 가능한 분
- ④ 일본문화원에서 한 달에 한번 이루어지는 정기 교류회에 참석 가능한 분
- ⑤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분
- ⑥ 기사작성, 촬영, 영상제작, 일러스트 등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분
- ⑦ 발대식 및 해단식에 참석 가능한 분

7. 선발 인원

15명 내외를 선발

8. 활동 기간

2015년 8월 ~ 2016년 1월 (약 6개월)

(우)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청소년교류 담당자 앞

10.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 111)

次は
「**ディベート**」で
日本語の木を
もっと太く、
もっと高く、
もっと大きく、
育ててみませんか。

日本語

第4回

韓国大学生日本語ディベート大会

主催：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釜山日本国総領事館
釜山日本人会・韓国大学生日本語ディベート大会運営委員会

Facebook : www.facebook.com/KoreaJapanDebate
Homepage : <http://nihongodebate.wix.com/korea>

■ **釜山大会** ■ **ソウル大会** ■ **全国杯**(釜山・ソウルより4チーム参加)

日時：10月3日(土)10:00～ 日時：10月4日(日)10:00～ 日時：10月9日(金・祝日)12:00～
会場：東西大学校 会場：祥明大学校 会場：東西大学校

お問い合わせ： 韓国大学生日本語ディベート大会運営委員会 E-Mail: nihongodebate@gmail.com

- 참가 신청 <https://goo.gl/F1RklK>

-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

제36회 한일 양국 아동작품 교류전시회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주최하는 한일 양국 아동작품 교류전이 개최된다. 사전에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일본과 한국의 유치원 아동 및 초등학생의 그림과 작문을 전시한다. 또한 전시기간 중에 전시 현장에서 그림그리기대회를 실시해 전시 마지막 날에 상을 수여한다. 입장무료.

일시 8월 12일(수) ~ 20일(목)

주최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문의 한일여성친선협회 02-2273-7645



일한미술교류전

일본작가 6명과 한국작가 8명이 참가하는 일한미술교류전으로 조각, 도예, 회화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전시된다. 2014년에 열린 조각가 다카하마 씨와 도예가 김덕희 씨의 조각과 도예의 일한교류전에 이어지는 전시로, 이번에는 기존의 두 작가를 비롯한 일한작가 14명의 그룹전으로 진행된다. 입장무료.

일시 8월 25일(화) ~ 9월 10일(목)

주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ABRAZO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교통문화협회, 갤러리 세호, 구마모토공항빌딩, 하루나비버릿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문의 김덕희 016-450-3848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事業
日韓美術交流展
일한미술교류전
7+7 exhibition
2015. 8/25 tue - 9/10 thu
CLOSE : 8/29, 30, 9/5, 6
10:00 - 17:30
■ Opening Party : 8/25 (tue) 17:00~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公報文化院 シルクギャラリ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
Public Information and Cultural Center Embassy of Japan Korea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
Address: 100, Jamsil-ro, Songdo-gu, Seoul 150-850, Korea
Tel: +82-2-2011-2011 or 02-2011-2011

제15회 일본어 연극제 개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사)부산한일교류센터 공동주최로 영남지역 대학생의 일본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본어 원어연극을 통해 양국 간의 상호 문화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다음과 같이 '제15회 일본어 연극제'를 개최한다. 무료관람.

일시 9월 6일(일) 14:00~ 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사)부산한일교류센터

참가 대학교

대학명	공연명
경북대학교	幽霊と嘘とアルコール
부산외국어대학교	にわか雨は止まない
영남대학교	新 桃(井)太郎
창원대학교	名探偵の掟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상상이 되는지? 연일 39℃를 웃도는 교토의 8월. 에어컨이 없는 동남쪽 창문의 2층 목조집 처음에는 그저 낭만 그 자체였다. 그러나!

채광 짱! 기차길 옆 보금자리~

분지(盆地)인 교토,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 했음을 처음엔 알지 못했다.

오~
땀 흥건... 자다가 더워서 깨.
배탈로 설 새 없이 화장실~
얼음을 먹어봐도 그때 뿐...
오도독 오도독
어지러워...

선풍기의 바람은 뜨겁고 집은 더이상 나를 보호해주는 집이 아니었다.

머리가 땀~ 습기는 정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휘잉~
얼마나 더우면 밥통 밥이 금세 삭아서 물이 되어버렸네...
주룩~

하여 집으로 부터 피신을~! 방학중에도 나의 최고의 피서지는 에어컨 빵빵한 학교. 오늘도 1등!

매일매일 출근도장 찍네요~
달작!
교토의 여름은 썩은 여름이야. 에어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니...
절대 집에는 가고싶지 않아요~
ㅠ ㅠ

그러나! 8월 오봉야스미(お盆休み)에 학교도 문을 닫고 더위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으악! 햇볕에 찔릴것 같아~
다다다
더위를 피해 전전 금궁, 이건 흡사 패잔병의 모습. 교토의 여름은 정말로 썩은 여름일까?

공격!
으악! 이렇게 그날로만 다녀도 습기 때문에 소용이 없잖아~
숙숙
척!
*오봉야스미(お盆休み)- 저승에 있는 조상들이 1년에 한번 이승에 있는 후손들을 찾아오는 날로 긴 연휴를 갖는다. 좀 이른 추석 같은 느낌 아닐까?

뜨겁게 달궜진 후라이팬 위에 던져진 버터처럼 더위가 정점을 찍은 어느날,
초아
너무 더워서 한기를 느낀다. 이러다가 나... 죽을지도...
으~

살인적인 더위에 더이상 숨을 곳 없어 북바쳐 오르는 설움에 난 그만 길 한복판에 서서 울어버렸다. 때마침 지나가던 쿡은 장대비.

썩아~
엄마 보고 싶어요~
멍멍 멍멍

사과 한쪽도 나눠먹기 힘든, 집 떠난 생활 중에 국적을 넘어 서로 돕고, 각자의 소중한 공간을 열어 슬며시 쓰옥~

언니, 이 밥먹고 열름 나아요~ (인도네시아식 건강 밥과 차)
인도네시아인 유학생
일본에선 더위를 이기려면 역시 장어지!
언니~ 약!
고... 고마워 애들아~ ㅠ 그래, 난... 혼자가 아녜어.
아~

그래도 참 신기하지? 그렇게 죽겠다가도 좀 살만 해지니 그 저녁에 아이들과 카메라 들고 '다이몬지(大文字)'를 구경하러 가는 내모습...ㅋㅋ 교토, 썩은 여름이라구요? NO NO NO~!

아름다운 밤이야~
와아~
짹!
아~

*일본의 여름 보양식은 단연 장어요리! 그 중에서도 특히 장어 간(うなぎ肝). *매년 8월 16일 교토 다이몬지(大文字) 오키리비(送り火).